

# 박근혜 “모든 공직 탕평인사”

## 지역균형발전·대통합 주장 호남 민심 꺼안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후보 확정 이후 두 번째로 호남을 방문해 지역회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국민대통합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날 호남 방문은 광주·전남과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지역민에게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민심 꺼안기에도 공을 들였다.

박 후보는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자신에게 “동서회합”을 당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쉽지 않은 길이고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 못했지만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회합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균형발전과 탕평인사를 강조한 그는 최근 민주당 전 의원들의 영입을 거론하며 “인재등용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저와 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지역회합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인재등용이 우

선되어야 함에 따라 모든 공직에 대량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화의 주역인 광주·전남 지역민이 이제 국민통합의 중심으로 우뚝 서 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어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당을 돌며 노년층의 손에 일일이 손 소독제를 뿌려주며 인사를 나눴다.

또 구내식당에서 이흥의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원장 및 노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노인복지와 관련한 환담을 나누고 식사 후 로비에서 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노인 중 일부가 ‘박근혜’를 연호하자, 박 후보는 환하게 웃으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효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전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관련 시민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의 (집행이) 6개 부처에 흩어져 효율적으로 진행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며 “기획단이면, 개발청이면 6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핵심 3개 포인트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과학기술”이라며 전북의 특화산업과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거둔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호남에서 20% + α가 목표”라며 “새로 교체된 당협위원장이 주변에서 신망받고 있어 행사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박 후보의 비례대표 사퇴 상황을 거론, “비례 26명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중 5명이 호남 출신이 되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시장·전남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 “F1 중심 ‘J프로젝트’ 적극 지원하겠다”

### 차, 대선공약 제시

23일 광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일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그동안 광주·전남과 맺었던 약속, 끈끈히 꿇겼던 사람이 누구나”며 “여수 엑스포, F1대회, 나로도 우주센터 등 전남지역의 모든 현안사업을 지원한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되면 호남이 희망의 땅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한 뒤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등 광주를 자동차 산

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도가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사업을 F1 대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이밖에 전남에 서남해안과 도서지역을 묶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과 풍력산업 클러스터 육성, 여수 해양엑스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 노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인복지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하며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 중증(암·뇌·심장·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국가가 100% 책임지고 치료를 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노인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독거노인 근로장려 제도 도입 등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가족구성원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어르신 간병인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빛의만평** - 김중두

父女간 돌이켜 선거 치를 생각인 모양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서둘러야 하는 이유

# 광주만의 콘텐츠 없으면 전당은 ‘깡통’ ‘문화 허브’ 위해선 예산·전담팀 시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광주만의 콘텐츠’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전당 건축 공종률이 46%수준으로, 오는 2015년 개관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와 광주시가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주 이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내년도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25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70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친 것이 좋은 사례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

화전당이 아시아 문화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3541개였던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체 수가 2010년 4294개로, 753개가 증가하는 등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업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문화콘텐츠 기업(10만7155개) 중 4.01%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종사자 비중은 전국 대비 2.19%에 그치고, 기업 매출액도 전국 대비 1.08%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열악한 광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현주소다.

지역에서는 특히,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전담할 팀이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은 점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단의 싱크탱크격인 아

시아문화개발원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시아 문화개발원은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예산 집행권을 전 추진단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안에 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을 전 시공연 책임자로 선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문제를 놓고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간 온도차도 크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건립이 우선이지 콘텐츠 등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7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문화개발원 측은 “문화예술전시 특성상 콘텐츠 등은 개관 전부터 확실하

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15년 7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후 전당 내 5개 원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제작·관리할 전담 부서 설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추진단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자문을 받아 이를 맡고 있지만, 개관 후엔 추진단은 사라진다. 따라서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전담할 단체나 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추진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위치가 애매하다. 이 문제도 조만간 매듭지어야 한다”며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 할 단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착순 분양!**  
11월 중순 예정

LH www.bitgarm-lh.or.kr

Green Energypia - 광주전남혁신도시 **빛가람**

# 초광역 혁신도시에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74㎡/84㎡ 총 1,226세대**

- ☑ 중도금 무이자 대출시행
- ☑ 분양권 전매가능(계약 1년후)

■상기 CG컷의 호수공원엔 이미지 표현을 위해 제작된 경수로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 062)653-8200, 8199**    운영시간 10:00~18: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시청:한국토지주택공사 ■시청 52빌딩-4(이비관상주), 동이간상신업(주)/B4빌딩-(주)서한, 임원동건(주) ■본 본보통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전시관 오시는 길